

안녕하십니까, 개고기 식용문제와 동물 해방론에서의 관점에 대해 PPT 발표를 할 영어학과 김봉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랑스 배우이자 동물 애호가인 브리짓 바르도(Brigitte Bardot)가 2001년 경 한국의 개고기 식용문화를 비판함으로써 개고기 식용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2002년 월드컵 개최지로서 알려진 때에 유럽 전역에서 한국에 대한 비난이 뜨거워져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왼쪽 사진이 브리짓 바르도이고 오른쪽 사진이 브리짓 바르도가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브리짓 바르도 재단에서 유기견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만든 지하철 광고입니다.

다음은 2001년 11월 28일자, 12월 3일자 손석희와 브리짓 바르도의 전화 인터뷰입니다. 다음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개고기 식용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녀에게 개고기 식용문화를 비판하는 것은 문화적 상대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태도가 아니냐고 묻자 개고기 식용은 문화가 아니라 야만이라고 치부하고 있습니다. 문화 상대주의란 세계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각 문화는 문화의 독특한 환경과 역사적, 사회적 상황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사회의 환경과 맥락을 고려하여 문화를 판단하는 것으로, 어떤 문화 요인도 나름대로 존재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문화나 개인의 잣대로 그 어떠한 문화도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녀의 문화적 상대주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는 식용개와 애완용개가 따로 있는 것을 알고 있냐는 질문에 먹는 개와 집에서 키우는 개를 구분하는 것은 인종차별이며 개를 먹는 것은 식인 문화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주장을 보면 그녀는 개가 사람이라는 전제조건을 바탕으로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조건은 매우 주관적이며, 생각의 방향을 전환한다면 다른 동물들은 개와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보다 개를 우위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서구의 영향을 받아 개에 대한 애착이 강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개고기 식용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개를 다른 동물들보다 우위에 두는 이유는 개는 동반자이고 인간의 그림자라는 점을 당연시하며 이러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경우 오랜 역사 속에서 뿐 아니라 현재 시골에서는 개는 소나 닭과 같은 가축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개를 다른 동물들보다 우위에 두어야 한다는 고정 관념과 그 근거가 뒷받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배우인 브리짓 바르도에게 한국의 문화나 역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냐는 질문에 그녀는 단지 번역된 한국 동화에서 사람들이 한복을 입고 있었다는 것 말고는 알고 있는 지식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개를 어떻게 생각해왔는지, 왜 개고기를 먹는 문화가 생겨 나게 되었는가 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고서는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개고기 문화는 우리 선조의 지혜

가 담겨 있는 문화입니다. 흔히 서양적 사고를 자연 정복주의 사고라고 하고 동양적 사고를 자연 친화적인 사고라고 합니다. 한국은 자연에 순응하는 성질에 따라 날씨가 더우면 몸을 덥게 하여 이겨내고, 추우면 춥게 하여 이겨냈습니다. 이열치열이란 말이 있듯 여름에는 삼계탕과 보신탕을, 겨울에는 냉면을 먹던 우리 조상입니다. 게다가, 여름에 몸보신을 위해 개고기를 먹었다는 것은 다른 고기들보다 개고기가 영양가가 높아서가 아니라 한 가족이 먹기엔 소는 크기가 너무 크며 농사일에 없어서는 안 되는 자산이었고, 닭은 너무 크기가 작았으며 개가 그 크기가 적당했기 때문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녀는 인도의 힌두교에서는 소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다른 소고기 식용 문화를 인정한다는 점에 자신도 인정하지만 개고기를 먹는 나라는 문화적이지 못한 나라라고 단정짓고 있습니다.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정을 할 수 있지만 개고기를 먹는 문화는 인정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프랑스인, 미국인, 독일인 등은 개고기를 먹지 않는 다가 아닌 먹을 수 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개고기 식용이 개인의 기호나 가치관, 그 나라의 전통은 생각지 않고 오히려 인종적인 면과 결합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에 반박하는 자료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20세기 프랑스의 개고기 정육점이며, 두 번째 사진은 1800년 대 프랑스에서 개를 잡는 사진입니다. 세 번째 사진은 Georgee Clucksank가 그린 개고기와 고양이고기를 파는 삽화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사진은 2002년도에 프랑스학생들의 개고기문화체험을 하는 사진입니다. 여러 자료를 토대로 할 때, 개고기를 먹었던 나라는 한국 뿐 아니라 중국, 베트남, 프랑스, 독일, 영국과 노르웨이, 미국, 스위스, 칠레 등 다양합니다.

다음으로 동물해방론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동물해방론의 선구자는 호주의 철학자 피터 싱어(Peter Singer)입니다. 그는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기본 원리는 지성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익에 대한 동등한 배려 때문에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물해방은 고통과 공포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벤담의 주장에서는 인간도 동물의 한 종류로서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인간에게 인간 이외의 동물을 이용할 권리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 이외의 동물들이 이성을 가지느냐, 말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느냐 하는 고통 감지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이 육류를 먹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미각을 즐겁게 하는 문제이지, 영양을 보충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육류 대신 콩, 유제품, 다른 고단백, 식물성 제품으로 만든 음식으로 훨씬 더 효과적으로 단백질 및 기타 필수 영양을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육식을 금지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녀의 인터뷰에서도 알 수 있듯 개고기 식용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감정적이며, 그들이 내세우는 전제조건은 매우 주관적입니다. 개고기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개고기가 맛있고 그들이 단지 먹기 위해서 찬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고기 식용을 반대하는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다른 동물들은 다 먹어도 되면서 왜 개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지에 대한 논리적인 주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만이 옳고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개고기 반대자들의 배타적인 태도에 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개고기 식용문제는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는 개고기식용에 찬성하는 사람들 중의 하나입니다.

개고기식용문화는 한국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서구의 잣대에 맞추어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라는 다수의 휩쓸리는 것이 아닌 전통을 인정하고 하나의 음식 문화로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터리 논리를 끼워 맞추는 개고기식용 반대자들에게 화가 납니다. 개를 도살하는 것이 비인간적이고 잔혹합니까? 개 뿐만 아니라 소도, 닭도,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도살하는 것 자체가 잔혹합니다. 식용을 금지하려면 개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에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물해방론적 관점에서 개고기식용 반대여부를 본다면, 개고기식용의 반대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인종차별이 폐지되었던 때를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부를 가진 백인 남성에서부터 시작하여 백인 여성, 흑인, 그리고 현재에는 법적으로는 국적과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그에 합당한 평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물해방론에서 주장하듯, 인간 이외의 동물들이 평등하며 충분히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고통감지능력에 따라 그 권리의 정도가 달라지겠지만 단지 인간이 지능이 뛰어나다고 해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 그들을 이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사회적 흐름으로 볼 때 하루 아침에 육식을 금지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인종차별 폐지 또한 단계적이고 점차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미루어 동물의 평등도 단계적이고 점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일차적으로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적용범위를 다른 동물들에게도 넓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